

인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에 시민 목소리 담는다

1인 가구 범죄 막아라
부평, 여성안심드림 추진

공원조성 방향 수립 대토론회 개최... 지속가능성 등 논의

인천시는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캠프마켓 시민 대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12월 D구역 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반환된 캠프마켓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으로, 시는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오는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마스터플

랜을 수립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별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237명과 캠프마켓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취지를 살려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들로 구성된 미래세대참여단 9명 등이 참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 의제를 중심

으로 세션1 캠프마켓 공원조성 방향, 세션2 공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구분해 각 세션별 관련 전문가의 발제·발표와 토론, 참여단 분임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캠프마켓 시민공론화'가 속의형 의견 수렴 과정인 만큼 시민참여단은 토론회 참석에 앞서 지난 3주간 의제와 관련된 전문가 강연 등 온라인 사전학습을 이수했다. 또 속의과정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학습 전, 대토론회 개최 전·후 등 총 3회에 걸쳐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김미경 캠프마켓 시민공론화 추진

단 위원장은 개최사를 통해 "캠프마켓은 규모 면에서 인천시 거점공원으로서의 요건이 충분하기에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공원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한 논의 끝에 부평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 결론에 이르렀고, 논의의 과정이 쉽지않은 않았다"고 밝혔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캠프마켓 시민공론화는 오늘 이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캠프마켓을 만

들어 가기 위한 그 첫 단계이자 시작"이라며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진행되는 설계 공모 등 공원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 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시민인식조사, 토론회 개최 등 그간의 공론화 과정을 담은 결과 분석서를 작성하고, 5월 중 '캠프마켓 시민 참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인천/박주용·서광수 기자 pij6093@hanmail.net

인천시 부평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에 대한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안심드림(Dream)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여성 1인 가구 110가구를 지원한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 더해 지원 물품과 대상을 추가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40가구 및 여성 1인 40점포이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상 여성 1인 단독세대 중 전·월세 거주자, 전세환산가액이 2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여성 1인 점포의 경우 사업자 등록상 여성이 대표이며 전·월세 점포, 전세환산가액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점포가 대상이다.(전세환산가액=보증금+(월세×12개월)) 단, 가구와 점포 두 경우 모두 임차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돼야 한다.

지원 물품은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안심홈세트와 캡스 홈케어 도어 가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안심홈세트는 스마트 홈카메라,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장문이중잠금장치, 송장지우개로 대부분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집 내·외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집 안에 무선인터넷환경(WiFi)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캡스 홈케어 도어 가드는 양방향 통화, 24시간 출동서비스, 영상저장 30일 서비스 제공을 하고, 1년 무상지원 이후 해당 서비스를 계속 이용 시에는 개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여성 1인 점포의 경우 안심비상벨을 지원하며 긴급 상황 시 24시간 경찰이 긴급 출동한다. 설치 기사가 사업지를 직접 방문해 비상벨을 설치한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폭력·범죄피해가구와 저소득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자는 담당자 전자우편 또는 구청 4층 여성가족과에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부평/박주용 기자 pij6093@hanmail.net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퍼포먼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행정동우회 2024년 시정설명회 및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과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위원 위촉

의원·전직 공무원 등 10명... 30일까지 활동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본관 2층 의장 접견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관순·유경희·신성영 의원을 비롯해 회계 및 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을 위촉했다.

이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 예산 현액 기준 총 20조9740억원 규모의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종합

적으로 검사해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과 시교육감에게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봉락 의장은 "최근 글로벌경제 성장 둔화로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혈세가 적법하게 낭비없이 쓰였는지, 시민의 눈높이와 기준에서 어느 해보다 면밀하고 투명한 결산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박주용 기자 pij6093@hanmail.net

인천교육청, 수소에너지 인재양성 '맞손'

인천·한국서부발전·두산퓨얼셀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인천시,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발전본부, 두산퓨얼셀(주) 수소에너지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발전, 산업,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인 수소의 안전성과 친환경성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소경제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창의융합진로 공동교육과정(수소에너지 기초 탐구)과 창의융합진로 수소에너지 캠프를 협약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

한다.

인천시는 수소에너지 관련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기반 시스템 네트워크 연계 진로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두산퓨얼셀은 수소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지원과 에너지 관련 진로·적성 탐구 지원을 맡는다.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는 에너지 발전 현장 시설을 개방하고 교육 실비 활용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2021년 '수소에너지 기초탐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창의융합진로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해 왔으며, 인천시,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와 함께 '수소 영재 육성 지원 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퓨얼셀의 전문성과 한국서부발전의 현장성을 바탕으로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이해, 수소연료전지 작동 원리 및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 학습, 발전소 및 수소연료전지 공장 견학 등 수소에너지 진로탐구 클래스를 매년 정례화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정에너지 산업을 이끌 창의적 수소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시청, 지역기관 및 산업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서광수 기자 seolov123@naver.com

지속가능한 성장
함께 잘사는 철원

2024년 한해농사 풍년을 기원합니다

기상이변 등 점차 어려워지는 영농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농업일에 종사하시는 모든 농민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철원군
Cheorwon

철원군
SNS 채널